

# 낙도포교 장학재단 생긴다

## 박산점-김명순 부부 허공장신행회에 1억 쾌척

교계에서 처음으로 낙도포교를 위한 청소년 불교장학재단이 생긴다.

경기도 군포에 거주하는 박산점(84)·김명순(77) 부부가 13일 낙도지역 포교단체인 허공장신행회(지도법사 지명, 법주사 주지)에 장학금 1억원을 쾌척했다.

허공장신행회(회장 황남성화)는 이 기금을 토대로 장학재단 설립위원회를 구성, 9억원을 더 모아 올해 내 낙도청소년 불교장학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 장학금은 내년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운 도서지역 청소년들에게 전달될 방침이어서 낙도포교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장학금 전달식에서 김명순 보살은 "신분배달하며 고향으로 공

부한 남편이 돈 없어 못배운 사람들을 돕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평생 입버릇처럼 말했는데, 맨 먼저 낙도지역 불교포교를 위한 장학재단 설립에 힘을 보태게 돼 흐뭇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에 허공장신행회에 기부한 1억원은 박산점 부부가 전남도청을 정년 퇴직 후 경기도 광명시 야산을 손수 개간하여 포도밭으로 만든, 노부부의 땅이 배어있는 6천평 농장의 일부를 처분해 마련한 것이다. 박산점 김명순 부부는 나머지 재산도 매각이 되는 대로 낙도지역, 도심포교를 위한 보시와 고한전 전담 나주에 청소년 장학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김보살은 "원래 인간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만큼 소유

하고 있는 부동산을 모두 처분, 장학재단을 만들어 사회에 환원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보살은 "공무원 월급으로 7남매를 키우면서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고아원을 찾아다니며 오르간을 사주는 등 나눔을 실천하는 남편의 뜻을 이해 못하고 자식을 지위 높게 키우고 부자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보니 물질보다는 참된 재산을 쌓는 것이 진정한 부자임을 알았다"고 말했다.

박산점 김명순 부부가 나눔의 신행을 펼치게 된 밑바닥에는 무언의 가르침을 받은 둘째 시아주머니 박호철거사가 있다. 박호철 거사는 당시 나주 다보사 주지로 주석했던 고암 스님(前 조계종 종정)의 가르침을 받고 스님 못지 않는 철저한 수행과 무소유의 삶을 일관되게 살아 와 지역주민들에게 감화를 주고 있다. 무엇이 생기면 어김없이 마을에서 가장 못사는 집에 갖다주는 박호철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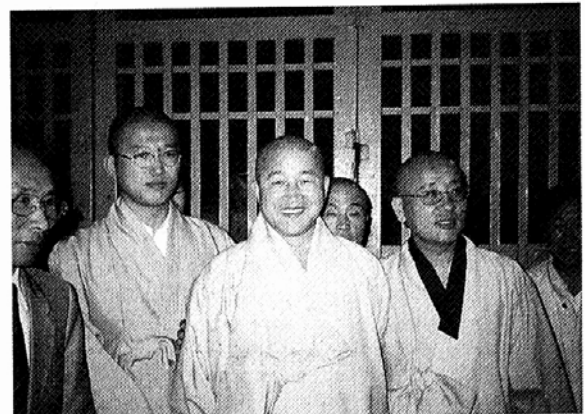
사의 무소유 삶을 항상 생각하며 마음을 다진다고 한다.

김보살은 7남매를 키우느라 정성이 없던 지내다 30년 전 시골의 쓰러져 가는 농막에서 수행하는 스님을 만나는데서 불교와의 인연을 시작했다.

"혹시 필요한 것이 있느냐고 스님께 조심스럽게 물으니 '없다'고 단숨에 잘라 말해요. 스님의 얼굴이 너무나 맑아서 스님들을 의호하겠다는 원력을 마음속으로 세웠어요"

자식들이 성장하여 다 제갈길을 가계된 20년 전부터 박산점 김명순 부부는 가난한 사람과 신도시 도심포교당, 포교신행단체를 찾아다니며 어떻게 수행하는 스님과 포교하는 불자, 불우한 이웃을 찾아 무주상보시를 해오다 이번에 낙도포교를 위해 큰마음을 낸 것이다. 김보살은 현재 청계사 종신도회장과 허공장신행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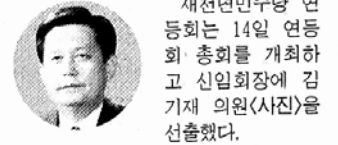
**진관스님 출소** 지난해 8월 개최된 범민족대회와 관련,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장)이 14일 서울구치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이날 서울구치소에는 불교인권위 운영위원장 지원스님과 사무처장 도관스님, 나눔의 집 원장 혜진스님을 비롯한 10여명의 스님들과 노수회 전국연합 공동의장, 이종진 범민족 남측본부 의장 직무대행 등 50여명이 나와 진관스님의 석방을 축하했다.

김두식 기자

### 뉴스 & 뉴스

#### 연등회 새회장 김기재의원



새천년민주당 연등회는 14일 연등회 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김기재 의원(사진)을 선출했다.

부회장에 장정연 의원, 이사에 장재식 최선영 조한천 추미애 조성준 곡치영 김태홍 박주선 이원성 이희규 함승희 의원, 노무현 배종무 전의원, 최해조 감사 등이 각각 선출됐다.

김지연 기자

#### 청년불자 환경사랑 지킴이

대한불교청년회 제19차 전국청년대회가 10~11일 이틀간 부산 해운대 송림공원에서 전국의 청년불자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초발심의 청년불자 환경사랑 지킴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청년대회는 DDR 경연대회, 불칭 가요제, 도리다리 축하공연, 법문 스님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한편 전국에서 참여한 청년 불자들은 해운정사에서 진제 스님을 계사로 '물을 아끼다' '사후 화장한다' 등의 환경 5계 수계식을 통해 환경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다짐했다.

전미희 기자

#### 비지정문화재 잇단 도난

한동안 잠잠하던 비지정문화재 도난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5월 23일 오후 들어 처음으로 경북 영덕 관음사에서 현왕탱 1점이 도난당한다 이어, 31일에는 경북 청도 용천사에서 대웅전 석가모니 후불탱화 4점과 또다시 도난당했다. 이번에 도난당한 후불탱화는 18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문화부 관계자는 "장마철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 6.25 전몰장병 추모 위령제

군법당 사암련 등

6.25 50주년을 맞아 전국에서는 추모 위령제 준비가 한창이다.

육군 5군단 호국금강사(주지법사 이종인)에서는 25일 6.25 전몰장병 및 희생영령추모위령제를 봉행한다. 영가천도식, 위령대제, 탑돌이 순으로 오전 행사가 끝나면 오후에는 도피안사 제2땅굴 원정리 집합대 노동당사 등으로 일찍이 순례의 시간을 갖는다.

성남 약사사는 육군 15사단 천안공공성지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행락철이 되면 사찰 입구까지 몰려드는 행락객들로 인해 수행에 큰 지장을 받고 있을뿐만 아니라 인근 요식업소에서는 사찰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들이 빈번하고 있다"며 법흥사 일주문 설립 예정지 내의 요식업소 허가와 신축건물 허가취소 등을 요구했다.

한명우 기자

전남 내인정사(주지 정연)도 5월 8일 일제강점기 제20회 선망부모조상 및 전몰장병 호국영령 천도 49일간 지장기도 대법회를 25일 회향한다. 내인정사는 이날 회향과 함께 26일 치주마을에서 방생법회로 호국영령천도법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부산 남구·수영구 불교사암연합회(회장 지원)는 25일 UN 묘지 위령탑에서 6.25 한국전쟁 50주년을 추모하는 전몰 영령 위령대제를 봉행하며, 문수불교문화원(원장 설국)은 25일 문화회관 야외 광장에서 부모님과 함께 하는 통일영원 어린이 백일장도 개최한다.

또 경남 함안사암연합회(회장 지정)는 25일 함안 민간비에서 함안군 전몰장병위령제를, 종량구사암연합회(회장 경천스님)는 육군 57사단 호국용마사에서 22일 호국영령위령대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전미희·김지연 기자

### 수행환경 보호 요구

**법흥사, 영월군에 진정서**

강원 영월군 수주면 법흥사(주지 도안)가 사찰 주변환경 보호와 수행환경 보존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13일 영월군에 제출했다.

법흥사는 진정서에서 "최근 중창불사 계획상 법흥사 일주문이 들어설 흥령선원복원지의 100m 인근에 도자기전시관 및 사업장이 생겨나고, 지방유형문화재 72호인 정효대사 부도탑 및 보물 612호인

정효대사 보인탑비와 불과 500m도 되지 않는 거리에 서양식 2층 크린리트 건물의 민박집이 들어서서 등 불교성지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행락철이 되면 사찰 입구까지 몰려드는 행락객들로 인해 수행에 큰 지장을 받고 있을뿐만 아니라 인근 요식업소에서는 사찰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들이 빈번하고 있다"며 법흥사 일주문 설립 예정지 내의 요식업소 허가와 신축건물 허가취소 등을 요구했다.

한명우 기자



김명순보살(왼쪽 세번째)이 13일 1억원의 낙도포교를 위한 장학금을 허공장신행회에 전달했다.

### '7300-108' 전화하세요

#### 사찰수련법회 정보센터 '오픈'

전국사찰 수련법회 정보는 7300-108로 전화하면 쉽게 얻는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연)은 13일 2층 강의실에서 포교원장 정연스님, 불교신문사장 영담스님, 각본사 포교국장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련법회 정보센터 개소식 행사를 개최했다.

수련 정보센터는 두달간 전국사찰의 수련법회 정보를 취합하여 불자 및 일반인들에게 수련법회 장소, 참가대상, 참가방법 등을 안내한다. 또 수련법회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찰에는 개설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교재발간 및 업무지원 등도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 일반인들의 경우 수련법회 참가요청 및 관심이 쇠대하고 있으나 정보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본사급 사찰의 경우 높은 경쟁률로 참가가 쉽지않은 실정이다. 반면 일부 말사의 경우는 홍보부족으로 수련대회 참가자가 없는 등 참가자의 빈익빈 부익부의 상황이 전개돼 있었다.

한편 조계종포교원은 13일 운영과 실무내용을 다양하게 수록한 <사찰수련법회 자료집>을 발간했다.

수련법회 자료집에는 '수련법회의 기획' '수련법회의 준비' '수련법회의 운영과 실제' '수련생들의 사후관리' '색다른 수련법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원우 기자

### 도와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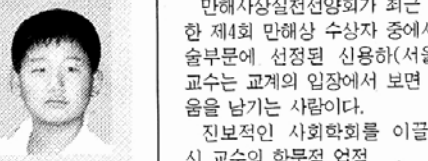
**소아암 앓는 8살 '승욱'**

**10년째 혈우병 '상훈'**

승욱이와 상훈이를 도와주세요

98년부터 황문근육증(소아암)으로 삼성의료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오승욱 어린이(8·사진 왼쪽)는 눈에 암이 생겨 사물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 월세 20만원에 내기도 버거운 승욱이 더 가정형편으로는 병원비를 더 이상 감당할 길이 없어 치료를 못하고 있다. 연락처: 오승욱(02-956-1676) 축협(115-73-02487-917 예금주 윤순덕)

8살 때 재생불량빈혈(혈우병)이 발병해 10년째 병마와 싸우고 있는 심상훈(18)군. 1년에 서너차례나 중환자실 신세를 져야하는 상훈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골수를 이식받는 것. 그러나 월세 15만원, 9명짜리 반지하에 사는 상훈이네는 500만원이나 되는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애만 태우고 있다. 연락처: 생명나눔실천회(02-734-8050), 농협(053-17-001346 예금주 생명나눔), 김두식 기자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최근 발표한 제4회 만해상 수상자 중에서 학술투부에 선정된 신용하(서울대) 교수는 교계의 입장에서 보면 아쉬움을 남기는 사람이다.

진보적인 사회화를 이끌어온 신 교수의 학문적 업적을 인정해 선정된 점에는 이의가 없지만, 그는 과거 '3·1운동 발발의 경위'라는 논문에서 "만해 스님은 독립선언문의 공약사항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견해는 '만해상이 호교(護敎)에 노력한 사람만이 수상해야 한다'는 편견에서 출발한 게 아니다. '아쉬움'은 바로 신 교수가 77년 만해 스님과 공약사항의 관계

를 추론한 논문을 발표한 이래 후속 연구를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더욱이 90년 초 교계 한 역사학자가 <이기영 고회논문집> 등을 통해 신 교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고 또 논문을 신 교수에게 발송했지만, 지금까지 신 교수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그 학자의 논문은 '그 학자의 논문은 해상 수상을 계기로 만해 스님과 공약사항의 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한 후속 연구 결과물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만해상 수상자로서 만해 스님에 대한 예우라 생각한다."

만해상 심사위원회는 '대승적 차원에서 신용하 교수를 선정했다는 후론이다. 그렇다면 신 교수는 만해상 수상을 계기로 만해 스님과 공약사항의 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한 후속 연구 결과물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만해상 수상자로서 만해 스님에 대한 예우라 생각한다.'

## 산삼

춘천(홍천) 가리산에서 기도 정진중에 11뿌리 산삼을 캐었습니다. 인연있는 분을 만나고자 하오니 관음사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삼 보시금은 전액 불사에 쓰여집니다.

▶ 연락처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용두2리 관음사  
0338)773-9751  
771-7429  
011)229-9751

## 금해스님의 여 레 셴 식

많은 분들께서 여래 선식의 뛰어난 입에서 입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감탄하시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순금 만큼 값진 죽염 쥐논이 공간장, 룬매주를 발효시켜 한번구운 죽염으로 긴장을 뜨고, 숙성시킨 긴장에 진짜 지수정 죽염을 넣고, 지수정 죽염 약재를 넣고 2달 2도 도계 풀인 진 죽염 긴장... 바르고, 넣고, 마시는 그 신비한 진 죽염 긴장 모든 암에 결정적 영향, 소화기 정장환에 급속 해결

▶ 숙취 해소, 기정의 비상약 ◀

- 진죽염간장 1L : 200,000원
- 원동 토종매실로 발효시킨 예기스 1.5L : 60,000원
- 쥐 논이 콩 매주 1kg 당 : 15,000원
- 쥐 논이 된 장 1kg 당 : 10,000원

▶건강유료 및 장류 사업 통합하실 불자님을 모십니다  
▶자본 3억 이상 출자 가능하신분. 경영전문가

상담의 0523)372-1221 / 011)564-1217

- 입금 : 우체국 611715-02-016346 예금주 : 지덕용
- 주소 :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754 약사사

## 초기스님들은 과연 어떻게 생활하였을까?

# 초기 불교 교단 생활

부처님 제세시와 일반 직후의 초기 불교 교단 내의 여러 가지 생활 상들을 다양한 전거들을 토대로 정리한 책

출가 및 구족제 제도, 안거와 포살 및 자자제도, 승가의 의식주, 계율, 갈마제도 등 부처님이 제정하신 다양한 제도와 구조, 계율과 생활 모습 등에 대해, 만들어지게 된 동기와 과정, 그것이 가지는 의미와 여법한 절차 및 종류 등에 대해 상세하게 고찰하고 있다.

초기 불교 교단 생활

태원스님 저/신국판양장/348쪽/값 13,000원

도서출판 은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번지 태원빌딩 ☎전화 : 3672-7181~5 팩스 : 3672-7186

## 밀교란 과연 무엇인가?

# 밀교학개론

종합불교 살아있는 진정한 불교로서의 밀교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조명한 책

밀교의 기본적 특징 및 그 전개과정, 밀교의 핵심 중 하나인 다라니와 만트라와 의미, 밀교의 교관론 및 핵심 교리, 매일어려울 중심으로 한 불신론, 밀교의 상징적 표현인 만다라를 통한 인식론, 밀교의 성불론, 각국에서의 밀교의 전개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밀교에 대한 여러 오해와 편견들을 불식시키고 있다.

밀교학개론

종석스님 저/신국판양장/256쪽/값 10,000원